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 어떤 경계 닦쳐도 '공부'로 알아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제일 귀한 게 뭐냐 하면, 자기 뿌리를 자기가 밟는 겁니다. 배를 타고 마창가지입니다. 자기 선장을 믿지 않는다면 누구를 믿습니까? 그래서 파도가 치든 잔잔하던 양을 다 놓고 그 선장한테 맡겨 놓는다고 겁니다. 선장이 배를 끌고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파도가 친다고 해서 우왕좌왕 하며 마음이 흔들린다면 결국에는 배가 뒤집히죠. 우리 몸통이를 배로 바꾸었다면 그렇단 얘깁니다. 선장인 주인공이 자기를 이끌고 가는데 바깥으로 자꾸 밀려간다면 목적지까지 제대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현제는 부(父)와 자(子)가 상봉을 못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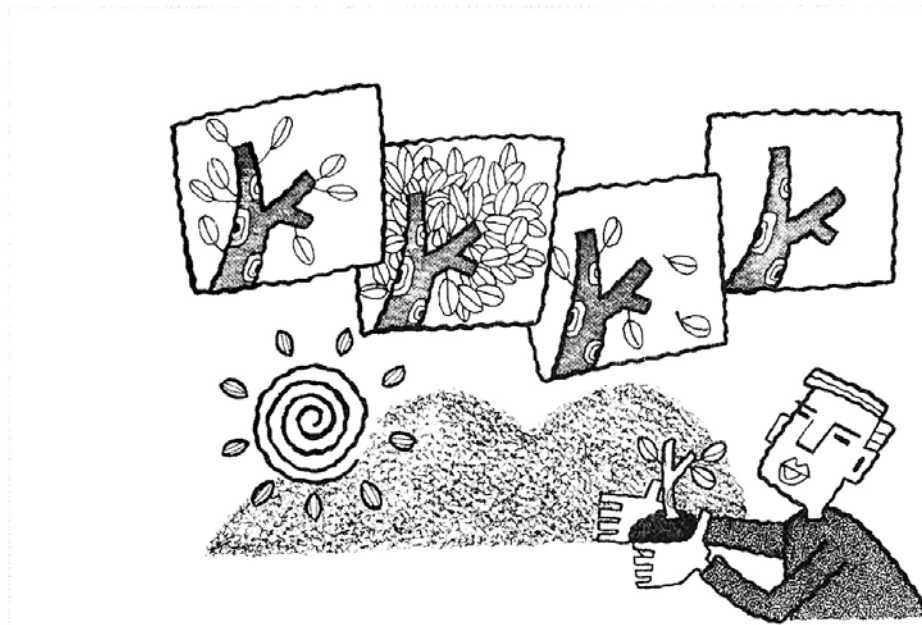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항상 좋은일만 생기지 않는 것은 파도나 잔잔한 물이나 동등하듯 그 이치 알게하기 위해서죠”**

다 하더라도 한군데다가 몰두해서,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거기서 하는 거니까 리게 하는 것도 나아!' 하고 굴러 놓으니까 '법문을 굴린다' 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굴리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굴러 놓을 때 참나에 대뇌를 통해 사대로 통신이 돼서 정수의 컴퓨터에 입력이 된다면, 그 입력대로 그냥 나오게 돼 있습니다. 깨우쳤다 깨우치지 못했다를 떠나서 진짜로 자기 근본자리를 믿는다면 갑니다.

그냥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그 헤아릴 수 없는 세계로 가는 길이 수천 수만이 된다 하더라도 어디건 간에 한 갈라입니다.

**“마음에 묻고 맡기는 습관에서 답이 나와요”  
“땀을 땀라 집착하면 멀도에 이르지 못하죠”**

건 공부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불도 깨졌다 깨졌다 하는데 사람 사는 일이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밤낮도 들고 있고 바다 파도도 일었다 꺼졌다 하지 않습니까. 파도나 잔잔한 물이나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등한 이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자꾸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만큼의 맡기는 일들이 생겼어요. 텔런트가 배역을 맡아서 그때 역할을 해 내고 본래자리로 돌아오는 것 처럼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수습하려면 '날 공부시키느라고 이렇게 답답하게 만들고

크달리게 만드는구나!' 하고 바로 내안 에다 관하게 되면 답답하게 한 순간에 다 없어지죠. 이치가 그러하네 얼마동안 잘 되더니 지금은 안된다고 하면서 답답하다고 해요. 그래서 하는 소립니다. 답답하다 생각지 마시고, 답답하고 모르고 그러는 것이 도니까 모르고 답답하고 말도 안되고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공부했어 이게 뭐냐? 하고 한탄하지 말고, 모든 걸 그 자리에서 맡기세요. '한탄하게 하는 것도 너고, 답답하게 하는 것도 너고, 모두가 너다.' 하구선 거기다 맡겨놓을 때, 그게

습관이 되면 어떤 거든지 다 거기다 놓게 되죠. 그리고 실력을 통하고 또 체험을 하게 되면 자연적 문이 열리는 그런 이치거든요. 본래 깨우치라고 돼있는데 여러분이 딱 막아놓고는 안하니까 안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살아 생전에 그 도리를 알아야 죽어서도 떳떳하고 어디든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공부했어 이게 뭐냐? 하고 한탄하지 말고, 모든 걸 그 자리에서 맡기세요. '한탄하게 하는 것도 너고, 답답하게 하는 것도 너고, 모두가 너다.' 하구선 거기다 맡겨놓을 때, 그게

내가 항상 그러죠. 이 세상에 누구를 믿을 데가 있느냐? 못났든 잘났든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너만이 너를 믿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누구에게도 자불(自佛)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 자식간에도 자신 통치할 수 없고 밥 먹어 줄 수 없고 잠자줄 수 없고, 아파 줄 수 없고 죽어 줄 수 없고, 깨달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믿을 곳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이끌어 가는 자기 주인공, 자불밖에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자불로 인해 얻을 수 없는 제물이 할나할나 뛰어나니까요. 그리고 통신도 되면서 항상 들고 나시거든요. 그 자불 주인공에, 우리가 영화를 한편 보더라도 주인공이 고생은 해도 죽는 건 드물죠? 결과는 항상 회향을 잘하고 끝내지 않아요? 그

그런데 그걸 못 참아서 '관해도 안됩니다. 열심히 해도 이것밖에 안됩니다.' 이러거든요. 진짜로 믿는다면 당겨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진실로 이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으로, 죽는다면 하더라도 겁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내버려둬요. 내버린 건 왜냐하면 항상 얘기하듯이 봐도 본 게 없고 들어도 들은 게 없고 만나도 만나 게 없고, 또 가고 와도 가고 온 게 없고, 모두 해도 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걸 먹었을 때 내가 먹었다고 할 수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18면으로 계속

### 생활 속의 불교 (158)

## 행복 · 성공 · 건강을 내것으로 하고 싶거든.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고 부처님 생명과 내 생명이 둘이 아니며 부처님 몸과 내 몸이 둘이 아니다. 일체 만물의 생명과 내 생명, 일체 만물의 마음과 내 마음, 일체 만물의 몸과 내 몸이 둘이 아니다. 고로 일체의 대상을 내 몸과 같이 나와 같이 보는 게 불심이다. 대상을 높게 볼 것도 낮게 볼 것도 없이 나와 똑같이 보라. 둘이 아니라고 보라. 나무에 수 많은 잎이 달려 있어도 다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듯, 각각의 생명이 독립적인 것처럼 보여도 다 한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육신 · 기억 · 지식 · 지각활동 등을 통틀어 '나' 라는 존재를 독립된 개체로 인식한다. 그런 인식의 바탕 위에서 보면 나와 상대는 엄연히 다르고 독립적이다. 결코 같을 수 없다. 그러기에 누구라도 나만의 세계가 있다고 믿으며 각자 자존자애하면서 나의 주머니, 나의 밥그릇에 집착한다. 그걸 우리는 인지상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들의 삶은 그냥 내버려두면 쉽게 부정적으로 변한다. 아니 변하는 게 아니라 투쟁과 대립을 기본속성으로 삼게 된다. 아마도 이 세상은 그런 속성을 억지하려 하지 않는 한, 만민과 만민이 다투는 싸움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진정한 화합이란 법이나 제도, 교육 등을 담보로 하는 화합과 다르다. 그것은 사랑과 자비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며 서로가 서로를, 공생하고 공생하는 내 편이자 곧 나와 다르지 않다고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일체만물은 본질에 있어 서로 다르지 않다고 한다. 나와 나는 물론 다른 모든 생명체나 저 무정물까지도 내 편이요, 나의

한 부분이다. 더 나아가서는 나와 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이 세상은 거대한 한그루의 나무이며 우리는 각각은 한뿌리에 의지하고 있는 나뭇잎과 같은 것이다. 가르침대로 우리 각자가 한뿌리에서 나온 일체와 같다면 일체와 일체가 대립하고 투쟁하는 것을 뿌리가 원한다고 보겠는가. 뿌리는 모를지기 일체와 일체란 서로 다르지 않은 하나라고 볼 것이고 대립이 아닌 화합이야말로 모든 일체의 기본속성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화합은 우리 모두의 뿌리인 불성, 한마음이 환영하는 당연한 도리인 것이다. 바뀌어야 할 화합은 이 우주 법계의 근본 성질이자 법계의 질서에 순응하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독립된 개체라는 인식을 떨쳐 버리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주변의 상대와 화합하려는 노력을 잊어서는 안된다.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심지어는 내게 닦아오는 일체 경계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못났다고 생각하면 못나대로, 잘났다고 생각하면 잘나대로 그걸에 감사하고 좋으면 좋대로 나쁘면 나쁘대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만이 법계가 환영하는 일이고 둘이 아닌 도리에 부응하는 일이다. 불화는 땀을 날고 땀고액난을 물고 온다. 내게 닦아온 역경은 모두다 내가 상대와, 일체만물과 화합하지 않고 진정으로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다. 불화, 갈등, 투쟁의 뒤 끝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다. 거기엔 좌절, 실패, 싸움, 질병등이 있을 뿐이다. 반면에 화합과 감사는 불성이 고대하는 바로 법계가 환영하는 일이기때문에 바로 끝없는 행복, 성공, 건강 등이 따르게 된다. 그걸 원하거든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삶의 길을 따르면 된다.

일체 만물이 하나요 만 생명의 근본이 내 근본과 다르지 않으니 물 한보금 마시는 일, 밥 한 숟가락 씹는 일에서도 더불어 먹고 더불어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일부터 감사의 생각을 지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본래가 공심 · 공용 · 공체 · 공심 · 공생하고 있으니 자동적으로 감사해 하지 않을 수 없는 원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살아가는 것이 그대로 회향이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일체만물은 본질에 있어 서로 다르지 않다고 한다. 나와 나는 물론 다른 모든 생명체나 저 무정물까지도 내 편이요, 나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일체만물은 본질에 있어 서로 다르지 않다고 한다. 나와 나는 물론 다른 모든 생명체나 저 무정물까지도 내 편이요, 나의

화합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싹튼다. 조상에게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자식에게 감사하고 내 이웃 내 동료에게 감사하고 내 스승에게 감사하고 나아가서는 일체 만물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심지어는 내게 닦아오는 일체 경계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못났다고 생각하면 못나대로, 잘났다고 생각하면 잘나대로 그걸에 감사하고 좋으면 좋대로 나쁘면 나쁘대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만이 법계가 환영하는 일이고 둘이 아닌 도리에 부응하는 일이다. 불화는 땀을 날고 땀고액난을 물고 온다. 내게 닦아온 역경은 모두다 내가 상대와, 일체만물과 화합하지 않고 진정으로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다. 불화, 갈등, 투쟁의 뒤 끝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다. 거기엔 좌절, 실패, 싸움, 질병등이 있을 뿐이다. 반면에 화합과 감사는 불성이 고대하는 바로 법계가 환영하는 일이기때문에 바로 끝없는 행복, 성공, 건강 등이 따르게 된다. 그걸 원하거든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삶의 길을 따르면 된다.

협찬 : 신지연